



작은도서관 중독자들의 '벽돌책' 깨기

경기 모당공원작은도서관 외 30곳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고양 파주 부천 지역의 7개 작은도서관과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단체 회원도서관으로 구성된 경기북부 지부는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으로 도서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책 문화 관련단체들과 협력, 도서관정책에 대한 활동도 열심히 하는 작은도서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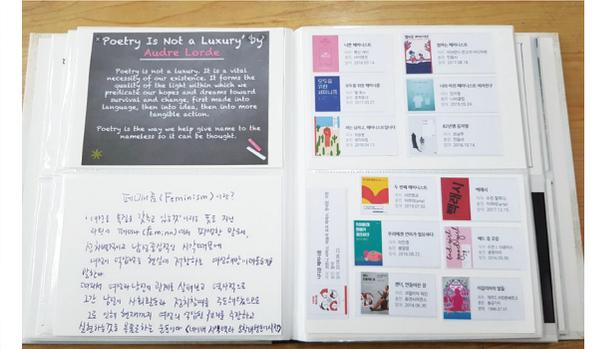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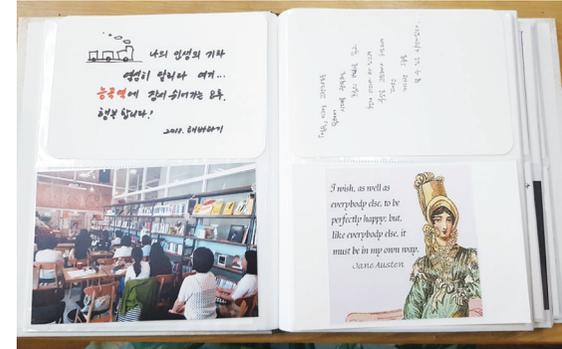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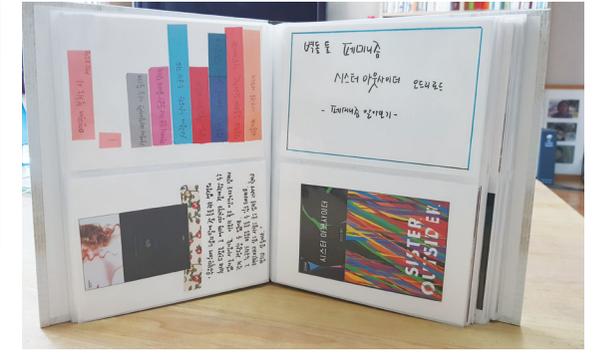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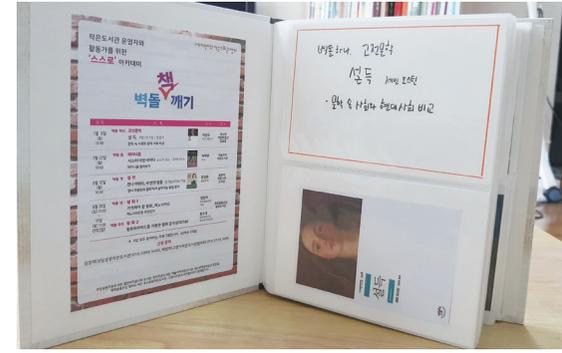
그동안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활동가들을 위한 많은 교육을 들으며 큰 매력을 못 느꼈고 매번 비슷한 내용의 교육에 피로감을 느끼던 경기북부지역 작은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스스로 기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는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계기로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은 혹은 듣고 싶은 교육은 무얼까 논의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활동가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키워드들을 꺼내서 관련된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각자 자기 도서관에서 인문학이나 책 관련 강의를 기획해 이용자들에게 소개하거나 개인적으로 강의를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해 보는 기회는 흔치 않았다.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자신들이 활동하는 도서관에서 공부한 내용을 펼칠 수 있고 도서관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듣고 싶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보았다. 평소 어렵게 생각되었거나 혹은 잘 알고는 있지만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주제의 책들을 골라 '작은도서관 중독자들의 '벽돌책' 깨기' 라는 제목으로 각자 듣고 싶은 교육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1) 벽돌책 깨기 1강 [고전문학 제인오스틴 읽기 - '설득' 읽고 강의듣기]

'문학은 시대를 담는다.'는 담론은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것인가?를 화두로 고전문학 한 편을 읽



고 그 시대와 현대 사회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2) 벽돌 책 깨기 2강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고 강의와 워크숍 진행]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뭔가 불편하다 그렇지만 알아보고 싶은 욕구를 담아 본다.

(3) 벽돌 책 깨기 3강 [‘한나아렌트의 삶과 저술, 전체주의의 극복’ 강의]

한나 아렌트를 책을 읽은 후 강의를 통해 한나 아렌트의 철학을 이해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 나눈다.

(4) 벽돌 책 깨기 4강 [‘기억해야 할 평화 제노사이드’ 강의]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인간은 언제까지 잔혹해질 수 있을까? 그 상황에 놓인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알아보는 시간 갖는다.

(5) 벽돌 책 깨기 5강 [‘평화피라미드를 이용한 평화 감수성’ 워크숍]

제노사이드를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해 본다.

총 5개의 주제를 가지고 형식을 달리해 구성한 강의와 워크숍은 원하는 도서관에서 돌아가면서 진행하여 사전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 이용자들도 자연스럽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매 강의 시간마다 강의 준비나 강사와의 소통하는 역할을 분담하였고 전체진행과, 회계담당, 홍보를 위한 웹자보 제작 등 담당을 나누어 맡아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이라는 책임의식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벽돌책 깨기’는 쉽게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 이상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고전을 통해 그 시대를 다 읽어 내거나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던 페미니즘, 전체주의, 평화, 제노사이드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단 한 번의 강의로 모두 알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길을 찾아야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벽돌에 금이 가게 한 것 같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의를 들은 회원도서관 중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에서는 벌써 여성작가가 쓴 고전 읽기를 시작했다. 스스로 기획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도서관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 스스로아카데미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

한나 아렌트의 삶과 저술, 전체주의의 극복

- 위험한 사랑, 위험한 사상을 밀고간다

김경윤 인문학자, 작가

아이히만을 당대의 엄청난 범죄자로 만든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순전한 '생각 없음(thoughtlessness)'이다.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더욱이 행위는 정치적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멸성(mortality)이 아닌 탄생성(natality)은 정치적 사상의 핵심
범주가 된다.
- 《인간의 조건》

■ 아렌트 연보

1906년 (0세) : 10월 14일 독일 하노버 근교에서 기술자 파울 아렌트(Paul Arendt)와 부인 마르타 아렌트(Martha Arendt) 사이의 외동딸로 태어나다. 출생증명서의 이름은 친할머니의 이름을 따라 요한나 아렌트(Johanna Arendt)이다. 양친은 모두 쾨니히스베르크 출신의 유대인이다. 아렌트는 “전형적인 동화된 독일-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한다.

1909년(3세) : 쾨니히스베르크(이 도시는 그가 존경한 선구자 이마누엘 칸트의 고향이었다)로 이주하다.

1913년(7세) : 할아버지 막스 아렌트가 사망하고,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 역시 사망하다. (어머니 아

르타 아렌트는 1920년에 클라라(Clara)와 에바(Eva)라는 두 딸이 있는 홀아비 마르틴 베어발트(Martin Beerwld)와 결혼했다.)

1913~1924년(7세~18세) : 쾨니히스베르크와 베를린에서 학교에 다니다. 부분적으로는 독학을 하기도 하고, 대학교 행사에도 참석하다.

1924년(18세) :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대학입학자격(Abitur)을 획득하다.

1924~1928년(18세~22세) : 마르부르크 대학교, 푸라이부르크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철학(주전공), 개신교 신학, 그리스 문헌학을 공부하다. 마르틴 하이데거, 에드문트 후설, 카를 야스퍼스, 루돌프 볼트만, 마르틴 디벨리우스 등의 교수를 만나다.

1928년 11월(22세) :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카를 야스퍼스의 지도 아래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의 사랑 개념》(1929년 출간)이다.

1929년 9월(23세) : 베를린 노바베스에서 귄터 슈테른(Gunther Stern, 필명은 귄터 안더스)과 결혼하다.

1930~1933년(24세~27세) : 자유 작가로서의 첫 작품은 “라헬 바르하겐의 예에서 본 독일-유대인의 동화의 문제”에 관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다. 독일 학문 조성 단체(1930~1931), 유대인 기구(1932)의 지원을 받다.

한나의 첫 번째 탈출

1933년 7월(27세) : 베를린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독일에서 탈주하다.

한나의 두 번째 탈출

1933~1940년(27세~34세) : 파리에서 거주하다.

1933~1937년(27세~31세) : 시온주의 정치활동을 하다. 1935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3개월간 체류하다.

1936년 봄(30세) : 하인리히 블뤼허(Heinrich Blücher)를 만나다.

1937년(31세) : 독일 국적이 박탈되다. 귄터 슈테른과 이혼하다.

1937~1938년(31~32세) : 학문적 작업을 다시 시작하다. 학위 취득 후 시작한 라헬 바르하겐에 관한 책을 완성하다.(영어판 출간은 1958년, 독일어판 출간은 1959년). 반유대주의의 역사에 관한 작업을 시작했으며, 강연활동도 병행하다.

1938~1940년(32~34세) : 1938년 독일에서 일어난 유대인 학살 이후 다시 사회 활동에 복귀하다. 활동 과제는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을 위한 유대인 단체 및 시온주의자들과 협동하여 중부 유럽에서 유대인을 이주시키는 작업이었다.

1940년 1월(34세) : 하인리히 블뤼허와 결혼하다.

1940년(34세) : “적대적 외국인”으로서 남프랑스의 구르(Gurs) 수용소에 5주간 감금되다. 루르드(Lourdes)를 거쳐 몽토방(Montauban)으로 도피하다.

1941년(35세) : 하인리히 블뤼허와 함께 기차로 에스파냐를 거쳐 포르투갈로 출국하다.

1941년 1~5월 : 무국적 난민으로 리스본에 체류하다.

한나의 세 번째 탈출

1941년 5월 22일 : 하인리히 블뤼허와 함께 배를 타고 뉴욕에 도착하다. 어머니인 마르타 베어발트는 한 달 뒤에 도착, 그녀가 죽을 때(1948. 7. 27.)까지 블뤼허와 함께 뉴욕에서 거주하다.

1941년~사망 : 뉴욕에 거주하다.

1941~1952년(35~46세) : 언론 정치 활동 및 교육 활동을 하다. 유럽 유대문화재건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뉴욕의 다양한 기관에서 강연하다.

1944~1946년(38~40세) : 유대인 관계에 관한 학술대회의 연구책임자로 활동하다.

1946~1948년(40~42세) : 뉴욕 쇼켄(Schocken) 출판사 책임편집자로 활동하다.

1949~1952년(43~46세) : 유대인 문화재건기구 사무총장을 지내다.

1949~1950년(43~44세) : 유대인 문화재건기구의 임무로 첫 번째 유럽 방문이 이루어지다. 서독을 방문해 베를린에 머물면서 카를 야스퍼스, 마르틴 하이데거, 청소년기와 대학 시절의 친지를 만나다.

1950년 6월(44세) : 《사유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다. 28권이 1973년부터 유고로 출간되다 (~2002).

1951년(45세) : 《전체주의의 기원》을 출간하다.

“인간을 남아도는 존재로 만드는 인간의 잉여화, 그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화는 존재를 건드라지 않고 오직 인간의 존엄만 해치지만, 인간의 잉여화는 인간을 남아돌아 쓸모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운동은 원자화되고 고립된 개인들의 대중 조직이다. 다른 모든 당과 운동을 비교할 때 전체주의 운동의 가장 뚜렷한 외적 특징은, 개인 성원에게 총체적이고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1952~1953년(46~47세) : 구겐하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유로운 연구 작업을 하다. 프로젝트 제목은 “마르크스주의의 전체주의적 요소”였다.

1952년(46세) : 하인리히 블뤼허가 뉴욕의 바드 대학(Bard College)에서 철학과 교수직을 얻다.

1953년 10~11월(47세) :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서양 정치사상의 전통”이라는 주제로 여섯 차례 강연하다.

1954년 3월(48세) : 노트데임 대학교에서 “철학과 정치 : 프랑스혁명 이후 행위와 사상의 문제”라는 주제로 3부 강의를 하다.

1955년 봄(49세) :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초빙교수로 “역사와 정치이론” 강의와 두 개의 세미나를 하다.

1955년 가을 : 이탈리아, 그리스, 이스라엘, 스위스, 독일로 강연 및 휴가 여행을 떠나다.

1956년 4월(50세) : 시카고 대학교에서 월그린(Walgreen) 강연의 일환으로 여섯 차례 강의하다. 주제는 “인간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이었다. 《인간의 조건》을 집필하여 영어판(1958년)과 독일어판(1960년)으로 출간하다.

활동적 삶(vita activa)이라는 개념으로 나는 인간의 세 가지 근본 활동, 즉 노동 · 작업 · 행위를 표현하고자 한다.

	사적 영역	공적 영역
공간	가정(oikos)	폴리스(polis)
활동 유형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
원칙	필연성	자유
지배 형식	전제정치	민주정치

“사회가 모든 발전단계에서 – 예전에는 가정과 가계가 그랬던 것처럼 – 행위(action)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 대신 사회는 각 구성원에게 일정한 행동(behavior)을 기대하며, 다양하고 수많은 규칙을 부과한다. 이 모두는 구성원을 ‘표준화’ 시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며, 자발적 행위와 탁월한 업적을 갖지 못하게 한다.”

“타자에 의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까닭은 각자 다른 입장에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적 삶의 의미이다.”

“탄생에 함축된 새로운 시작은 새대기가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능력, 즉 행위능력을 가질 때에만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발성의 의미에서 행위의 요소, 즉 탄생성의 요소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 들어 있다. 더욱이 행위는 정치적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멸성(mortality)이 아닌 탄생성(natality)은 정치적 사상의 핵심 범주가 된다.”

1958년 4~6월(52세) : 유럽을 여행하며 강연 활동을 펴다. 브레멘에서는 “교육에서의 위기”, 취리히에서는 “자유와 정치”, 뮌헨에서는 “문화와 정치”가 강연 주제였다.

1958년 9월 : 프랑크푸르트에서 평화상을 수상한 카를 야스퍼스에 대한 축사를 발표하다.

1959년 봄(53세) : 프린스턴 대학교 초빙교사가 되어 “미국과 혁명 정신”에 관해 강의하다. 이 강의 내용은 이후 《혁명론》(1963)으로 출간되었다.

“일부의 다수이든 사회 전체의 다수이든 관계없이 다수는 하나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공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 곳에 서만 의견들이 발생할 것이다.”

1959년 9월 : 함부르크시에서 수여하는 레싱(Lessing)상을 받다.

1959년 12월 : 뉴욕 맨해튼으로 이사하다.

1960~1961년(54~55세) : 컬럼비아 대학교(1960년 가을), 노스웨스턴 대학교(1961년 봄), 웨슬리언 대학교(1961년 가을) 등 여러 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다.

1961년 4~6월 :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이히만 재판에 《더 뉴요커》의 리토퍼로 참관하다.

1961년 : 《과거와 미래 사이》를 출간하다.

1962년 3월(56세) : 뉴욕에서 택시 사고로 입원하다.

1962년 가을 : 시카고 대학교에서 초청 강의를 하다. 그 이후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열다.

1963년 2월(57세) : 《더 뉴요커》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보고서> 5부작을 연재하다. 3월 말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를 출간하다.

아르헨티나나 예루살렘에서 회고록을 쓸 때나 검찰에게 또는 법정에서 말할 때 그의 말은 언제나 동일했고,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었다.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inability to speak)은 그의 생각하는데 무능력함(inability to think),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the words)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the presence of others)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reality as such)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 본문 106쪽에서

“악은 결코 ‘근본적이지’ 않고, 오직 극단적일 뿐이며 또 악은 그 어떤 깊이도 없고 어떤 악마적 차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나의 견해입니다. 악은 표면 위의 곰팡이처럼 퍼지기 때문에 무성하게 자라서 전체 세계를 초토화합니다. 악은, 내가 말한 것처럼, ‘사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고는 어느 정도의 깊이에 도달하려 하고, 뿌리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악을 다루는 순간, 사고는 좌절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 251 쪽

1963년 2~6월 : 유럽에 머물면서 하인리히 블뤼허와 로테 베라트(Lotte Beradt)와 함께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휴가 여행을 떠나다.

1963~1967년(57~61세) : 시카고 대학교 교수(교육과 참석 의무 감면)가 되다. ‘뉴욕 신사회연구소(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강의하다.

1964년(58세) : 국립문예원에 가입하다.

1965년 가을(59세) : 코넬 대학교 초빙교수가 되다.

1967~1975년(61~69세) : 뉴욕 신사회연구소 대학원 교수(교육과 참석 의무 감면)로서 “철학과 정치” 및 “칸트의 정치철학” 등을 강의하다.(이 강의는 1982년 유고로 출간됨.)

1968년(62세) :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을 출간하다.

살아 있으면서도 삶에 맞설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드리워진 절망을 다소나마 피하기 위해 한쪽 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가 폐허 속에서 본 것을 다른 손으로 적을 수 있다. 그는 타인과는 다른 것,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결국 그는 살아 있을 때는 죽은 것과 같지만 참된 생존자다. - 프란츠 카프카, 『일기』(1921년 10월 19일자)

이미 가라앉고 있는 돛대의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 난파선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구조신호를 보낼 기회를 갖는다. - 발터 베냐민이 솔람에게 보낸 편지(1931년 4월 17일자)

1969년 2월(63세) : 카를 야스퍼스가 사망하다.

1969년 여름 : 하인리히 블뤼허와 함께 유럽에 머물다. 스위스의 테그나-로카로노에서 여러 주 동안 휴가를 보내다. 이후 거의 매해 몇 주 동안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다. 《폭력론(On Violence)》을 출간하다.

“권력과 폭력이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권력과 폭력은 반대의 것이다. 하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에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은 권력이 위협에 빠질 때 등장하지만, 제멋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는 권력의 소멸을 불러온다.”

“권력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협력 행위(to act in concert)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상응한다. 권력은 결코 한 개인의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에 속하며 그 집단이 협조할 때만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들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는 의미이다. 권력을 처음에 시작한 그 집단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권력’ 또한 소멸한다.”

1970년 10월(64세) : 하인리히 블뤼허가 사망하다.

1971년(65세) : 《정신의 삶》을 집필하기 시작하다.

“정신의 삶은 전문적인 철학자들을 포함해 정상적인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활동적 삶과 정신의 삶 속에서 동시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나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의 일부인 셈이다.”(20쪽)

“대화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훌륭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즉 상대자를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을 의미한다.(674쪽) 우리는 또한 이 과정에서 “질문하는 사람이며 답변하는 사람”이다.(674쪽)

1971년 11월 :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보상 청구권을 결정하다.

1972년 11월(66세) : 캐나다 요크 대학교에서 개최된 《한나 아렌트의 작품》 학술대회에 참석하다.

1973년 4~5월(67세) :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에서 《정신의 삶》의 제1권 “사유(Thinking)”를 주제로 기퍼드 강연을 하다 (이 내용은 1978년 출간됨).

1974년 5월(68세) : 《정신의 삶》의 제2권 “의지”를 주제로 기퍼드 강연을 연속했으나 심장마비로

5월 10일 중단하다.

1975년 4월(69세) : 유럽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덴마크 정부가 수여하다는 소닝(Sonning)상을 받다.

1975년 5~6월 : 유럽에 체류하다. 마르바흐(독일 문화서고), 테그나(《정신의 삶》의 제2권 “의지” 집필 작업), 프라이부르크로 하이데거를 방문하다.

아렌트는 의지 능력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는 대상들이나 목표들 가운데 선택하는 능력, 즉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을 자유롭게 심의하는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시간 속에서 일련의 체계적인 것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능력’ 또는 ‘인간 자신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갖게 된 인간의 시작 능력이다.(500쪽)

아렌트는 의지가 순수한 정신 활동뿐만 아니라 감각지각에서 나타내는 힘(결합력)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정신, 특히 ‘의지의 집중’에서 비롯된다. “의지는 집중 덕분에 첫째로 우리 감각기관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현실세계와 결합시키고, 이어서 이 외부세계를 사실상 우리 자신으로 끌어 들인다.”(678쪽)

“의지는 사유와 마찬가지로 현상세계 속에서 진행되지만 현상세계로부터 이탈한 상태에서 수행되는 정신 활동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의지는 현상세계와 사유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유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의지는 일반성을 지향하는 사유와 달리 특수성을 지향하므로 현상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상세계와 의지 사이의 공간적 거리는 사유의 경우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677~678쪽)

1975년 12월 4일 : 뉴욕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다. 남편이 오랫동안 강의한 뉴욕주 허드슨 강 유역 애넌데일(Annandale-on-Hudson, New York)에 있는 바드 대학에 묻혔다.

‘벽돌책깨기’와 함께한 작은도서관 중독자들의 소감

- * 도서관 활동가 들이 함께 모여 일 이야기가 아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 가지 주제를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 * 벽돌을 완전히 깨지는 못했지만 벽돌을 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 * 회원도서관들이 모두 참여해 기획, 섭외, 진행을 나누어 맡아서 하니까 함께한다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았고 사업진행도 부담감 없이 여유로웠다.
- * 평소 잊고 살지만 살면서 기본이 되어야하는 주제들을 이끌어내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 * 고전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깨는 계기가 되었고 고전을 읽는 시각을 넓혀주었다.
- * 이 교육을 계기로 도서관에서 책읽기를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
- * 한 주제로 연장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 벽돌을 깬으니 이제부터는 도서관들이 함께 논의해 쌓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 * 워크숍 후 평화를품은집 뒷산을 힘겹게 오르며 힘든 만큼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이 벽돌책 깨기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 * 사업비에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인건비지급도 협회에서 해주어 사업 진행이 수월했다.나눔터가 되어왔습니다

